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

본문: 마가복음 8:27-38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의 교과서이다. 물론 4복음서가 다 제자 훈련의 교과서이지만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 훈련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한 책이다. 첫정 첫 구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는가 잘 요약되었다. 1-8절까지는 제 1학기 교육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그 후부터는 제2학기 교육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가르침의 내용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 1학기 교육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제2학기 교육으로 교육의 핵심인 십자가를 가르친 것이다.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마을로 가시다가 제1학기 교육 학기말 시험을 치루신다. 발랍보 가이사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가이사가 주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거기에서 처음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다.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의 답변이 무엇이지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다**, 합격이었다. 1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제자들에게 제 2학기 교육을 시작한다. 제 1학기 교육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제 2학기 교육의 주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할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라.

I.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한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한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 하신다. 그래서 결국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다. 이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것이다. 기적을 행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배우고 십자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간단히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살펴 보자.

요한복음1:14 선재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다른 밀로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 시켜 주셨다. 유대인의 형식적인 의식인 결례에 사용될 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의미하는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먼 거리에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 주신 일, 38년된 중풍병자를 살리신 일,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시는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세상에 둘 수 없이 많은 기적을 셀 수 없이 하심으로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배울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 봄으로서 예수님은 참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한다.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는가?

II.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의 2학기 교육의 주제는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다.

1.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이다. 30-31절을 읽어 보라.

언제나 예수님의 교육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고 그 모범을 따르라는 교훈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골고다 산상에서 나무판에 손과 발을 두꺼운 못으로 못박고 그 십자가 판을 세워 그가 죽기까지 고통을 준 사건만을 십자가로 생각한다. 사실 그 십자가판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상상키 어려운 십자가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의 고통만이 십자가가 아니다. 그의 생애 자체가 십자가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예수님의 생애는 능동적인 순종으로서의 십자가이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사건은 수동적인 순종으로서의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 판에 못박혀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 주신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왜 십자가인가? 그의 탄생이 엄청난 십자가이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하루밤만 마구간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이 보통의 어려운 일인가? 홈레스들에게는 마구간이라도 있어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일 역이다. 그러나 따뜻한 아파트에서 폭신 폭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사람에게 있어서 마구간에서 하루 밤을 보낸다는 것은 보통의 고통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온우주의 주인이시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이시다, 그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보통의 고통이 아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한다(빌 2:7). 예수님은 낮아 질대로 낮아지신 것이다. 낮아짐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중국에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한국에 꽤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심한 비난을 쏟아 냈다. 그 목사님은 내가 아주 존경하는 별세의 신학으로 목회한 사람으로 존경 받을 분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가 알아 보았더니 큰 행사에서 자리를 배치하는데 그들은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을 제일 낮은 자리에 배치한 것이다.그러자 그분은 막 화를 내면서 왜 내 자리를 이곳에 앉게 하느냐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낮아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십가이다. 그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는 삶을 사셨다.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는 왕 중의 왕이지만 섬기는 자라고 말씀 하셨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하셨다고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며 수고하셨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분이시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신 분이시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의 고난을 이렇게 소개한다. **히브리서 5:7-9**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겹세마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생활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것이 없이 정말 어려운 십자가이셨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입지 아는가? 그 훌륭한 사도들도 기도에 실패한자들이다. 기도의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이 이 교회에 한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멀리 조롱 천대를 한몸에 받고 사셨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 하셨다.. 마태복은 11:28-30절을 읽어 보자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란 자기의 자원과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삶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성공한 dlstodd라도 스고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십자가를 가장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온유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이다, 그것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온유는 나, 자아, 교만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이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이다.** 사단은 자아 나 교만이 극에 달해 높아지려다가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나, 자아,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나 자아,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자기의 자원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그 마음에 고나고 수고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기가 온전히 죽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온유해진다. 온유해 질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온유해 질 때,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온유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했다. **한 형제를 도우면서 어려웠던 사건. 그 형제는 사사건건 따진다. 설교를 듣고도 따지고. 언제 했던 설교를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 놓고 왜 그 설교와 배치 되는 행동을 하느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이 뛰어 놀 자리도 없다, 결국 교회를 떠났다. 십일조를 엄청 많이 하는 자였다, 그해 우리 교회의 헌금 거의 반을 책임 진자들이 떠났다. 현대 조서 사장을 했던 분이다. 이대운 장로가 말해 줘서 알았다. 그러나 그해 결산은 그 전해 보다 많았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온유함을 허락하소서 기도해야한다.

2.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첫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 하셨을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가?

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막 꾸짖었다고 했다. 십자가 강의의 첫 번째 교육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 그렇다 십자가는 누구나 다 싫어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 없는 교회로 쉽게 전락한 것이다.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은 보통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그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십자가를 가르치는 일에 실패한 샘이다. 이렇게 실패를 하면 포기할 텐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 하시는가?

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내고 대드니까 예수님은 더 크게 화를 내시며 사탄아 물러 가라고 호통을 치신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잘못을 꾸짖으실 때는 무서울 정도로 꾸짖으신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얼마나 무섭게 꾸짖으시는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항상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싫은 말한마디 못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34=37절을 읽어보다. 38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이 말씀과 로마서 1: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면 말을 항상 기억 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도 노방 전도를 한다. 노방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도 있다. 한경현 진규상(내 책 186페이지)

그러나 항상 꾸짖는 것만 아니다. 영적인 교육에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심한 꾸지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꾸지람은 낙심케 하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책망이 되어야한다,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누가복음 22:32, 부활 하신 g 베드로 개인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심으로 그의 지극한 사랑을 보이셨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하실 때 그곳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

9:31-32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한다.

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9:33,34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다. 자기가 먼저 죽고자 하기 보다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

10:32-34 십자가를 가르침치신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마 20:20-28)도 십자가보다 영광을 구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받을 잔, 십자가를 저야한다고 가르치셨다,

10:41 열제자의 분노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구한다고 해서 분노했다, 그들은 십자가 보다 영광만 구한 것이다,

14: 32-37 기도의 실패

그들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실패 했다,

14:66-72 예수님을 부인 =한 베드로를 볼 수 있다, 그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 하여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요한복음 13-17장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21: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특히 이 주동자 역할을 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 개인에게 나타나셨다(눅 24:34, 고전 15:5).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다.

물고기 잡아 주고 조반을 먹여주고 나서 엄청 강하게 십자가를 가르치셨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도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강력하게 필레오적으로 사랑한다고 한다고 대답한다. 그 때마다 예수님은 내양알 치라고 대답하신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필레오적인 사랑은 세리의 사랑이라고 했다, 세리도 너를 사랑하는자를 사랑한다고 말씀 하신 것이다.

내양을 치라는 말은 가장 어려운 십자가이다. 양들의 특징, 제길로 간 자들이라고 이사야는 말했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 그들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것이 양치는 삶이다,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에 말썽을 부리는 사람은 하루 속히 쫓아내야 교회가 성장 한다고 가르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를 보호 하는 친위대를 만들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목사를 보호하고 반대 세력을 차단해야 교회가 부흥 한다는 것이다. 시온 교회의 예. 그러나 예수님은 샅군과 목자의 차이를 요한복음 10장에서 가르친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가야 하는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선 목자를 본 99마리는 목자의 사랑을 보고 도망 가지 않는다. 아 나도 도망 가면 저 목자가 나를 사랑하여 찾으려 다닌[갔]지? 그러나 한 마리 양이 도망가니 가도록 놓아 두면 99마리는 항상 불안해 한다, 나도 연약해서 넘어지면 목자가 나를 버리겠구나. 연약하여 넘어지면 그대로 놓아두고 99마리를 돕다보면 또 한마리 양이 연약하여 넘어진다, 그러면 98마리의 양만 남는다. 계속

남는 양만 돕다 보면 결국 한 마리의 양도 남지 않는다, 나는 목회 하면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데 생명을 쏟았다,

어떤 권사님이 부목사에게 지금 어려운 성도가 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화 했더니, **나 지금 퇴근해야 하는데요 했다고 한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보고 문자적으로 죽으라는 것이다.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떠 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뜨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베드로는 아직도 십자가를 못받아 들인다. 그래서 요한은 왜 가만 두고 나만 죽으라고 하느냐고 항의 한다.

신앙 생활이란 한마디로 십자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될수 없다. 한영혼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정도로 가르치는 일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말했다(갈 4:19).

가장 어려운 십자가는 선교다. 제자 양육을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마태복음 28:19-20

행1:8

드디어 베드로는 이 유언을 받아 들이고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확실하게 십자가를 배웠다,

그의 설교는 온전한 십자가가 녹아 있는 설교로서 3000명을 회개 시켰다,

40년동안 견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한다. 그의 확신 있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게 주노라 What I do Have, I give You. 베드로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참된 실재를 대표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참 구원을 줄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행 4:7-12절 읽을 것.

온마음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최소한도 장로님들만 나, 자아, 교만이 죽으면 된다.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만 교회 나와도 금방 부흥한다. 자기 가족들만 교회에 나와도 부흥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하여 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 준다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오지 않는 형제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원하는 것 다 내가 들어주겠소 해봐라. 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만 들어주면 나올 것이다. 지금도 교회 안나오려고 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를 알아서 해결해 주면 된다. 정말 그분이 교회 나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저 주겠다는 자세만 가지면 된다. 나는 교회 안나온 분들을 어떻게 교회 나오게 했는가?

12월 17일 행사 설명.

10년동안 준비한 사건이다. 지난 50주년 수양회에 이 사역을 역설했다. 개인적으로 ESF 이사들, 간사들, 온마음교회 리더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탁 했다. 한 사람도 관심이 없었다. 내 아내에게 나보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진지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포기 할 수가 없었다, 혼자라도 해야하겠다고 결심했다, 거의 매일 새벽 2,3시에 일어나 기도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다, 한 사람도 안오면 어떨까? ,나는 이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도전해 보고자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다(예레미야 33:3)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월요기도팀이다.

내가 책을 쓴 것도 이것을 위하여 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도와 주겠다고한다. 그러나 ESF 이사요 온마음교회 안수 집사에게 책을 읽었냐고 물었더니 안 읽었다고 했다. 어제 또 만나서 물었더니 안 읽었다고 했다. 어떤 안수 집사에게 책을 읽었냐고 했더니 무슨 책이나,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물었다.

ESF 서울 지구 간사들에게 이 모임을 알리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들중의 어떤 친구는 화를 내면서 **어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냐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이 사역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온마음교회 잠자 집사 4사람이 이 사역을 돕겠다고 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음식을 누가 만들 것인가?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밤에 응답을 주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남을 위해서 살다가 내 인생 이것이 무엇이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요즈음 나는 일생동안 집을 팔아 주님을 섬겼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1억을 주겠다고 했다. 집을 담보로 용자를 얻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1억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거절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집이 안 팔리지만 팔리게 되면 집을 팔아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생각해 본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남을 위하여 헌신을 많이하면 할수록 복 된 것이다, 그렇게 살고도 좋은 소리 못듣는 것 그것 참 좋은 것이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칭찬 받는 것 보다 사실 좋은 일 많이 하고 욕먹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누가 자기를 욕했다고 해서 입에 버금을 물고 화를 내는 것은 신자답지 못하다. 신자 생활은 내밥먹고 욕먹고 사는 삶이다.

우리 온마음교회서만큼은 전 교인이 참석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이 입만 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여 주면 된다,